

“自然과 環境을 위한 會議”서 自然公園調查研究制度化등 發表

利用行態의 果敢한 改善策없는 오늘의 趨勢론 可恐한 將來豫測



指定所外の 각종 山祭·炊事·飲酒行爲금지
·啓導·弘報·教育등 投資擴大바람직

文 莊 寅 (韓國國立公園協會 副會長)

[편집자주] 환경원년을 맞아 지난 1월9일 서울 마포구 가든 호텔에서는 자연과 환경관계전문인들이 모여 「自然과 環境을 위한 共同會議」를 가졌다. 이날 본회 文莊寅부회장도 발기위원 25인중의 한사람으로서 국립공원을 비롯한 각급자연공원의 생태계 보존과 올바른 이용행태를 위한 세가지 권유를 했는데 ① 조사연구의 제도화 ② 홍보·교육의 강화 ③ 투자확대책이 그것으로서 이가운데는 각종 山祭를 빙자한 대형 등반으로 인한 자연과괴행위의 지양등 우리공원운동자의 절실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회원들의 일독을 바란다.

자연과 環境을 위한 권유모임

오늘의 우리 모임이 “자연과 環境을 위한 권유”라는 제목이고 보면 저는 자연쪽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1972년에 제1차 유엔 인간환경 회의가 스톡홀름에서 열렸고, 지금 이 자리에는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하셨던 분도 함께 계십니다만 제가 소속하고있는 국립공원협회의 입장에서 말씀 드린다면 세계최초의 국립공원인 미국의 Yellow stone 국립공원이 1세기전인 1872년에 이미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인간환경회의의 캐치프레이즈였던 “하나뿐인 지구”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 땅위에 살고 있으니까 말이지 인간이 살고있는 이 천체는 사실은 지구가 아니라 수구(水球)인 것입니다.

다 알고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약 5억1천만km²의 이 천체 표면적은 71%가 바다이고 29%만이 땅입니다. 이 땅을 제일 넓게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소련으로 우리나라 남북한 총면적의 100배가 좀 넘습니다. 두번째 큰나라는 캐나다로 우리 남한면적의

100배가 좀 넘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 미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의 순으로 6개국이 육지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국토면적 200만km² 이상이 인도등 7개국이고, 100만km² 이상의 나라는 멕시코 등 16개 국가여서 이들 29개 국가가 육지면적의 73.5%를 영유(領有)하고 나머지 26.5%를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130여개 국가가 나누어 갖고 있는 것이 지구촌의 현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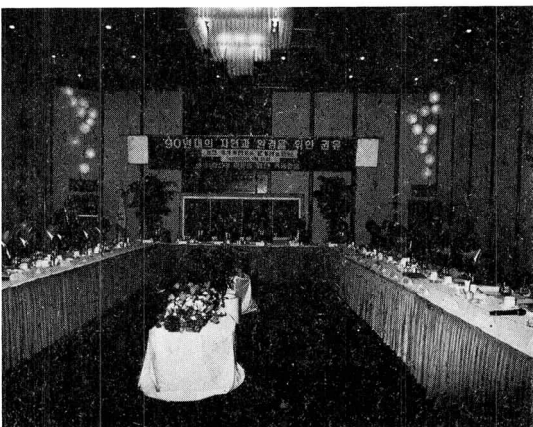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남북 합해서 80번째이고 남한만으로는 105번째의 국토에, 인구는 세계 21위 입니다. 이와같은 수치를 살펴 보는 까닭은 우리의 자연과 環境을 생각할때 가장 큰 문제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사회는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76.2%의 도시화율을 시현(示顯)하고 있으므로 한주일을 큰크리티브 속에서 일한 사람들은 휴일에는 자연을 찾지 마련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단순한 행락이 아니라 확대재생산을 위한 사회적수요(社會的需要)이며 인간이 생리적 재충전(再充電)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國立公園은 代表的 景觀과 資源의 보고

한 나라의 국립공원은 그나라의 대표적 경관이며 수많은 생태계의 자연자원을 간직하는 보고(寶庫)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속도로를 국토의 대동맥이라 부릅니다만 같은 논리에서 국립공원 이야말로 국토의 두뇌조직(頭腦組織)이란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나라든 그나라 국토의 젖줄기라고 일컫는 대부분의 하천이 그곳에서 발원(發源)하고, 그나라 국토공간의 생태적인 순환, 유지가 국립공원을 비롯한 각종 자연공원이 있기에 이루어 진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입니다.

국토가 넓은 나라의 큰강, 예컨데 중국의 揚子江에서는 한가죽이 뗏목을 짜서, 그위에서 생활하면서 가축을 기르고 그것을 부화(孵化)시켜가며 하구까지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 漢江의 경우는 昭陽江댐에서 초당 1,000톤의 물을 放流하면 19시간 50분만에 서울의 제 1 한강교에 와닿고, 5,000톤을 방류하면 14시간 35분 만에 와닿습니다. 洪水때에는 이 시간이 더욱 짧아질 것이 뻔하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있는 현실에서는 자연과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접근방법이 따로 따로 논의될 수 없고 함께 강구 되어야한다는 저의 주장을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말을 좀더 풀어서 말씀 드리자면 좁은 국토공간에서 도시환경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보면 그 문제의 원천이 되는 푸른산 맑은물이 훼손되어 보다 근원적인 자연과과의 무서운 재앙이 언제 우리앞에 닥쳐올지 모르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自然公園의 現況

이상과 같은 전제아래에서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개소의 국립공원이 있어서 국토면적의 3.79%를 차지하고, 도립공원, 20개소는 0.73%, 군립공원 24개소는 0.23%를 차지하고 있어 자연공원면적의 합계는 국토대비 4.75%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바다를 제외하고 육지면적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外國 국립公園의 유지관리방법 비교

여기에서 몇군데 외국의 예를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토가 남한의 100배에 가깝고, 세계 국립공원 운동을 창시한 미국의 경우는 그 유지, 관리의 방식이 우리와는 아주 다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자연발생된 산불은 끄지않는 것입니다. 산불도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보고 그 불이 자연적으로 꺼져서 그자리에 다시 풀이 돌아나고 곤충이 생기고, 새들이 오고, 다시 숲을 이룩하는 생태계 순환을 자연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사람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데는 매우 엄격한 규제를 합니다. 몇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고 정해진 곳 이외는 함부로 출입할 수 없으며, 금지된 행위를 하면 벌을 받습니다. 국토환경이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세한 비교는 별로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나라 미국에서도 48개 국립공원의 면적은 국토대비 5.1%라는 사실만은 밝혀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며 국토환경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국립공원 28개소 면적이 국토대비 5.43%이고, 자연공원법의 편제상 우리의 도립공원에 해당하는 國定公園이 54개소에 3.41%, 우리의 군립공원에 해당하는 都, 道, 府, 県립公園이 300개소에 5.27%를 차지하고 있어 자연공원 면적의 합계는 국토대비 14.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토환경은 북위 45도 이북에서 25도 이남까지 활(弓)모양을 하고있는 해양국가여서 동·식물의 분포는 풍부하지만 남한의 4배가 좀 안되는 면적에 1억2천만명의 인구가 살고, 산이 60% 이상

이란 국토는 우리와 닮았다고 보아 집니다만 88년의 자연공원 탐방자수는 9억1천만명으로서 국민 한 사람이 연간 7번이상 자연공원을 찾은 셈이나 최근 10년간의 통계는 연간증가율이 1%를 하회하고있어 거의 안정세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道立·郡立의 공원의 경우는 통계도 없어

우리나라는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탐방객 수의 정확한 통계조차 잡혀있지 못하고, 국립공원은 88년 3천8백만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전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사람의 수효는 아닙니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증가추세는 연평균 15.1%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自然公園指定확대로 生態系保存方案

여기에서 저는 자연보호와 환경개선을 동일선상에 놓고 자연공원의 지정확대와 그 생태계 보존을 이룩하여 보다 아름답고, 인간생존에 쾌적한 국토공간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권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사, 연구의 제도화입니다.

국, 도, 군립공원마다 탐방자와 차량수의 조사기록은 물론이고, 강우·강설량, 풍속, 기온등의 기상관측, 문화재, 경관, 동·식물등의 변화와 산화, 병충해와 충·수해의 발생과 결과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도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성실히 조사, 기록을 하고 그것들을 통계화 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많지 않은 기·자재와 인력만 투입하면 당장에 가능할 것이며, 특별한 때에는 전문인력을 요청해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현상(現象)과 우리들의 자연공원 이용행태(行態)에 비추어볼때 하찮은것 같은 이 제안은 거시적으로 보아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립공원을 위시한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調和)에 큰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는 홍보·교육의 강화입니다.

이 제목에 있어서는 앞서 발언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인식기조(認識基調)에 많은 공통점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도 기뻐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산이 거기에 있어서 산에 오른다”고 하던 매우 낭만(浪漫)적이고 목가(牧歌)적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립공원은 자연자원의 보호, 그리고 이용의 행태(行態)와 시설(施設)의 개선, 양면(兩面)에서 매우 위기에 치달고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10년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이른바 보호론과 이용론의 팽팽한 대립으로 원론에만 맴돌면서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동안에도 해마다 무슨 始山祭니 무슨 철죽祭니 해가면서 정초의 해맞이부터 겨울의 雪山祭까지 춘하추동을 가리지않고 수천명 수만명이 떼지어 山頂을 다니면서 국립공원을 훼손 파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일수록 우리나라의 산들은 높지 않으니까 로프·웨이나 차도의 개설은 반대한다는 보호론의 입장에 서서 자연공원을 알파한 상업주의의 희생물로 만들고있다는 감마저 듭니다. 보호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얼마나 큰 모순당착입니까. 국립공원제도가 생겨난지 20년이 넘는 우리사회에서 이용행태의 개선없이 지금까지의 추세대로 방임한다면 자연자원의 보호는 커녕, 무서운 장래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석학 여러분에게 간청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양면에서 학문적인 전문지식을 과감하게 투입해 주십시오”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국과 같은 탐방자의 사전 허가제까지는 못하더라도 한계수용량(Caring Capacity)의 연구, 적용, 출입금지 구역 설정, 계절적인 규제, 등산취사와 음주 금지, 환경영향평가 제도 실시, 쓰레기통 제거, 이용시설의 개발 등등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같은 이용행태의 개선에는 자연공원 이용자 한사람 한사람으로부터 산에 가서 취사를 하지말자, 산에 가서 먹음 감지 말자고 하는 합의를 얻어 낼 수 있도록 마스크의 적극적인 계도는 물론이고

많은 홍보물을 발간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연이 살아야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교육을 유아기, 초, 중, 고교교과과정 확충, 그리고 사회교육에까지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세째는 투자확대입니다.

이 문제도 앞에서 몇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국립공원의 적극적인 생태적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케이블·카를 놓고 차도를 닦자는데도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사·연구와 홍보·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국립공원 예산의 10%정도는 매년 이방면에 투입해서 국립공원 하나 하나의 소중한 가치를 깨우치고 따라서 그곳에 갔을때에 이용행태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뿌리 내릴때까지 투자를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소개책자는 빈약합니다.

외국인을 우선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어 외에 영어홍보지쯤은 함께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89년도 국립공원 예산은 282억이었고 이 액수는 건설부예산의 1.2%입니다만 그중에서 상당부분이 국립공원 진입도로 공사에 쓰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돈은 국립공원예산이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또 87년7월에 창설된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예산중 반이 좀 안되는 부분은 국립공원 입장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의때 보면 경제기획원쪽에서 되도록 국고지원을 적게하고 입장료등으로 자립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국립공원에 많은 사람을 끌어넣으라는 말이 되어서 공단설립 취지와는 모순되는 흐름이라고 일침을 가한적도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는 과감한 민자유치도 고려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서방7개국 정상회담에서 환경문제가 거론되고 소련이 환경문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정부도 금년을 環境元年으로 정하고 환경청을 격상시켰습니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쓰레기기를 잘 치우지 못한다고 질책만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국민의식개혁에 우리모두가 힘을 합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석자 명단

- ▲ 구연창(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 ▲ 권숙표(연세대환경공해 연구소 고문)
- ▲ 노유희(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
- ▲ 박창근(환경교육회 위원장)
- ▲ 신용배(대한환경공학회 회장)
- ▲ 김봉균(한국자연보존협회 회장)
- ▲ 김상현(한국환경보호협회의 회장)
- ▲ 이민재(자연보호중앙협회의 회장)
- ▲ 이병호(한국야생조류협회 회장)
- ▲ 이상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장)
- ▲ 이승무(한국폐기물학회 회장)
- ▲ 김수생(동아대학교 교수)
- ▲ 김안제(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 ▲ 김원만(한국수질보전학회 회장)
- ▲ 이용운(전국환경관리인 연합회 회장)
- ▲ 윤명조(한국환경기술연구소 소장)
- ▲ 정영호(서울대 명예교수)
- ▲ 정용재(한국생물과학협회 회장)
- ▲ 김정옥(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
- ▲ 김준호(한국생태학회 회장)
- ▲ 김창수(한국공해 피해연구회 회장)
- ▲ 김훈수(서울대 명예교수)
- ▲ 차철환(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의 회장)
- ▲ 최 열(공해추방운동연합 의장)

**山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을
깨끗이 후손에 물려줍시다**